

‘MyK FESTA in 여수’... K-한류 관광 이끈다

내달 13~15일 3일간 개최 여수 전역 무대로 K-콘텐츠 행사장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역 명소 연계 관광 상품도

한류와 지역 관광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관광축제 ‘2025 MyK FESTA in 여수’가 오는 6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곳곳에서 펼쳐진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5 MyK FESTA’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여수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색다른 한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조선시대 400년 전라좌수영 본영이었던 여수의 역사

적 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라좌수영 독제·수군출정식’을 비롯해 스테이시, 온앤오프, 싸이커스, 라잇썸, 예일리, 정승원, 폴킴 등 국내 인기 K-팝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K-팝 콘서트’가 열린다.

먼저 ‘전라좌수영 독제·수군출정식’은 이순신광장에서 펼쳐지며, 진남관에서 열리는 국악공연과 ‘이순신 스토리텔링 낫달산책투어’와 함께 관광객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K-팝 콘서트’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스키타워 뒤 특설무대에서 오는 13일, 15일 2회에 걸쳐 개최된다. 사전 행사로는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 K-팝 커버댄스팀의 무대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콘서트 피날레로 준비된 10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 K-팝 경연대회 ‘디지로그 콘서트’, 낭만버스킹·정촌버스킹,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및 아

쿠아리움을 여행하는 ‘한밤의 산책’, 캔들라이트 야외공연 등이 진행돼 지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여수시는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간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와 코레일 특별 관광열차를 편성했다. 행사 참가자를 인증하면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할인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여행상품 플랫폼을 통해 지역 명소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광주·전남권 대학 해외 유학생 및 기업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K-팝과 전통문화, 그리고 여수가 가진 낭만이 결합된 이번 한류 종합축제를 통해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



가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장흥군, 3인→2인 개정

전라남도 장흥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총 1093세대(다자녀 126세대, 차상위·수급자 897세대, 장애인 73세대)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희망자는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사용량 최대 10톤(7100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차상위·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감면이 불가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그동안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섬진강힐링생태공원 조성 완료 구례군, 군민 휴식공간 마련

전라남도 구례군이 4개년에 걸쳐서 섬진강힐링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섬진강힐링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섬진강 자전거종주길을 대표하는 휴게거점 쉼터 제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숲 모험 놀이시설, 순환 산책로 조성 등을 핵심으로 조성했다.

섬진강힐링생태공원은 전체 면적 3만 8866㎡ 규모로,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인근의 공원 진출입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 공원 입구에는 주차 공간이 마련된 공원 주차장과 섬진강 자전거길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쉼터가 배치돼 있다.

진입광장을 지나 공원으로 들어서면 생태순환숲이 조성돼 있어 자전거 이용객과 도보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어 포켓쉼터 개념의 ‘두바퀴 쉼터’가 마련돼 이용자들의 휴식을 돕는다. 또 산정천을 횡단하는 보도교를 지나면 자전거 거북이와 지형의 높이를 활용한 공간 ‘히든버거’, 여행자를 위한 ‘여행자정원’이 자리 잡고 있다.

공원의 마지막 구역에는 모험체험공간인 ‘섬진강모험숲’과 건강을 위한 ‘건강쉼터’가 조성돼 방문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구례군은 이번 공원의 완공을 통해 섬진강 대숲길과 연계한 대규모 공원이 형성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구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합성고무 생산시설 증설 준공 금호폴리켐 여수공장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금호폴리켐(주) 여수공장이 3000억원을 투자해 EPDM(에틸렌 프로필렌 다인 모노머) 생산시설을 증설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금호폴리켐(주) 여수공장 EPDM(에틸렌 프로필렌 다인 모노머) 생산용 5라인 증설 준공식에 정기명 여수시장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EPDM(에틸렌 프로필렌 다인 모노머)은 고기능성 특수 합성고무로 내열성·내오존성·내약품성이 탁월해 자동차용 차체 실링, 타이어 튜브, 호스, 건설 부자재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증설 설비는 금호폴리켐의 독자적인 ‘초저온 중합’ 기술과 40년 공정 운전 비법이 접목된 미래형 공장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 원가 경쟁력까지 갖췄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금호폴리켐은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여수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온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방치 텐트 철거·야영 금지 조치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4월부터 울포솔밭해수욕장 내 무단 야영 행위와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대해 강력한 제도 및 철거 조치를 시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울포솔밭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명소로, 최근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 왔다.

이에 군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2023년 6월28일 시행)에 따라 장기 방치된 취사 및 야영용품 제거를 통한 해수욕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군은 불법 텐트에 대한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 안내를 거친 후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해 철거를 완료, 해수욕장은 본래의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되찾았다. 보성=양중수 기자



지난 7일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번기 농촌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통해 순천시 한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공동 급식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여성농업인 일손·건강·문화 전방위 지원

공동급식·농가도우미·건강검진 등

전라남도 순천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부터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번기 농촌 마을 공동급식’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는 161개 마을이 참여해 지난해(148개 마을)보다 13곳이 늘어났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활동이 중

단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다.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인 남성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 총 180일 중 여성은 최대 70일, 남성은 최대 20일간 농가도우미를 통한 영농 대행 받을 수 있다.

51~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 검진 지원 대상은 총 750명으

로, 1인당 22만원의 검진비 전액을 지원받아 자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유를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도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연령을 기존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총 82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16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바우처는 미용실, 영화·공연 등 문화·복지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2025년산 물김 생산량 전국 1위 달성

16만7399톤, 2311억원 규모 생산액·위판액 모두 증가해

전라남도 고흥군은 올해 1만480ha의 면적에서 총 16만7399톤의 물김을 생산해 2311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하며 전국 물김 생산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물김 위판액 1000억원을 돌파하고 있는 고흥군은 올해 전년 대비 생산량이 38%(4만 6142톤), 위판액이 7%(149억원) 증가

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달 30일 2025년산 물김 위판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김 생육에 유리한 해황 여건과 양식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물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물김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고흥군은 지난 1월 구암항, 발포항 등 고흥군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격려한 데 이어 2월에는 전라남도,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와 합동으로 약

250척의 선박을 동원해 불법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을 제거하고, 김 수급 안정화에 주력했다.

또 군은 물김 수급 안정을 위해 총 22억 5900만원을 투입, 인증 부표 공급과 김종자 공급 지원, 폐기 비용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2025년산 물김 생산이 종료됨에 따라 여장 내 양식 시설물이 신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